

신년 인터뷰

“乙未年 새해,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이기를”

- 新성장 동력 발굴 통한 탈부진 기대, 건강한 건설 문화 정착에 앞장설 터 -

2014년은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 건설산업 역시 침체된 내수의 전이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지연 등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최악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건설 단체의 수장으로서 건설업계의 고통을 헤쳐나가고자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의 표류, 각종 규제와 중복 처벌 등으로 한 해 동안 극심한 애로를 겪었던 건설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새해에는 건설 공사의 열약한 수익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하여 건설업계가 오랜 부진을 털고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 완화 및 각종 중복 처벌 문제 등이 해소되어 건설업체들이 경영에만 매진하여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애쓰고 있는 최삼규 회장을 만나 건설업계의 현안과 새해 구상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2015년에는 그동안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던 건설 공사의 열악한 수익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하여 건설업계가 오랜 부진을 털고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유난히 사고가 많았던 갑오년이 지나가고 '양'의 해인 을미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2015년 건설업계에 전하실 인사말과 어떤 일들이 건설산업에 일어났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2014년은 세월호 참사 등 사건 사고와 경기 침체 등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건설업계도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의 표류, 각종 규제와 중복 처벌 등으로 극심한 애로를 겪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뎌온 건설인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을미년 새해에 가정의 건강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5년에는 그동안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던 건설 공사의 열악한 수익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하여 건설업계가 오랜 부진을 털고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규제 완화 및 각종 중복 처벌 문제 등이 해소되어 건설업체들이 경영에만 매진하여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실 때 가장 인상에 남은 활동이나 성과,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최근 몇 년간 어려운 업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녀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고, 아쉬

운 점도 있습니다. 그 중 긍정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유발하는 비정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점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이었던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낙찰률 상향,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로의 개편 등을 이끌어냈고, 발주기관의 부당 계약 단가 삭감 등 불공정 행위 개선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정책적 변수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후속 조치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정책 효과가 반감되었고, 담합 등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 무차별적 중복 처벌로 인해 국내외에서 건설업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4년 국내 건설 수주액이 105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감이 줄어들고 경영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올해 국내 건설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건설 수주는 2014년의 105조원 이어 2015년에는

신년 인터뷰

“2015년에 국내외 건설 환경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의 적기 이행, 공공 물량의 확대, 민간 투자의 회복, 미국 금리 인상 및 양적 완화 축소 등 대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최악의 침체 국면은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07년 수주액이 128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회복 국면도 과거에 비해 상승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회복 수준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여러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어 2015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국내외 건설 환경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의 적기 이행, 공공 물량의 확대, 민간 투자의 회복, 미국 금리 인상 및 양적 완화 축소 등 대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요인과 민간 경기의 회복, 세계경제 등 외부적 요인이 어떻게 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침체 지속이나 본격 회복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협회 등이 적극 노력한 결과, 정부는 현행의 실적공사비제도를 표준시장단가제도로 대체함으로써 공공공사의 계약 단가를 현실화하고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건설 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적정한 공사비의 확립이 우선되어

야 합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는 단가 정보 수집시 이미 수행한 공공공사의 계약 단가만을 활용토록 하고 있어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시장 가격의 반영이 어렵고, 실적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하도급 계약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약 단가 외 입찰 단가, 시공 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 가격을 수집, 축적하여 활용토록 개선한 사항은 시장 가격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한시적이지만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조치 등 세부 실행 방안 마련 시 업계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업의 생산 의지를 꺾는 과도한 법적 제재 또한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과도한 법적 제재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님께서 어떤 해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협회는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업계 자정 노력을 조화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업계에 담합이라는 행위가 더 이상 재현되지 못하도록 하여 건강한 건설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중복 제재로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와 발주기관의 올바른 입찰제도 확립 및 과도한 담합 제재 개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담합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입찰 담합에 대한 예방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격 위주로 행해지고 있는 현행 발주제도를 적정 공사비 확보에 따른 기술 경쟁 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쟁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의 제재를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에 의하도록 하고 보완적으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내리게 하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당해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로 한정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5년, 협회는 이처럼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업계 자정 노력을 조화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건설업계에 담합이라는 불공정 행위가 더 이상 재현되지 못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건강한 건설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건설산업은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저성장 위주의 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보시지요?

건설 환경이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경제 성숙기 진입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투자 여력 감소 등 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근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변화를 인식하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혁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단한 기술 개발과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일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안형 민관 복합 개발, IT·BT·문화와 결합된 새로운 건설 수요 창출 등 스스로 새로운 건설 일감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여 부정과 부조리를 일소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와 발주기관도 건설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저가 경쟁을 조장하는 발주제도 혁신, 금융·기술적 지원 및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진출을 돕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거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 : 이형우 편집장